창사 67년 새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남양건설

광주매일신문

治病장수 百歲건강
목포 청연한방병원

제9080호 대표전화 (062) 650 - 2000
34 SINCE 1991 kjdaily.com
2025년 12월 30일 화요일 (음력 11월 11일)

“179분 희생 헛되지 않게 진실 규명…책임 물어야”

제주항공 참사 1주기 추모식 엄수

쉘터 지킨 유가족들 분향소서 통곡

위령제 종교단체 “독립 조사” 촉구

李대통령도 “사죄…진상 규명 협조”

그리움 사무친 희생자 이름 호명에

너도나도 오열…참석자들 ‘눈물바다’

헌화하는 유가족 29일 오전 무안국제공항 2층에서 엄수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에서 유가족 대표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헌화하고 있다. 유가족협의회와 국토교통부가 ‘기억하라 12·29’를 주제로 개최한 이날 추모식에는 유가족과 참사 당시 수습에 참여했던 기관·지자체·국회 관계자, 일반 국민 등 1천200여명이 함께했다. 〈사진공동취재단〉

“179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끔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유가족들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29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엄수된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에서 유가족들은 붉은 눈시울로 이 같이 다짐하며 떠나보낸 가족들의 명복을 빌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10시 무안공항 2층에서 ‘기억하라 12·29’를 주제로 참사 1주기 추모식을 개최했다. ▶관련기사 3·4·6면

추모식에는 유가족과 참사 당시 수습에 참여했던 기관·지자체·국회 관계자, 일반 국민 등 1천200여명이 함께했다.

추모식 전부터 쉘터를 지키며 무안공항에 있던 일부 유가족은 행사장으로 가기 전 분향소로 향했다. 검은색 커튼이 쳐져 있어 안은 볼 수 없었지만, 바깥까지 흘러나온 울음소리는 유가족들의 슬픔이 지난 1년간 조금도 가시지 않았음을 실감케 했다. 추모식 행사장에서 유가족들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안부 인사를 건네거나 손을 맞잡으며 서로를 위로했다.

1년 전 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공항 활주로에 추락한 오전 9시3분을 앞두고 자리에서 일어난 참석자들은 추모 사이렌이 울리자 눈을 감고 희생자 179명을 애도했다. 이어진 위령제에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등 종교 단체들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 방식은 달랐지만, 독립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참사 원인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메시지는 같았다.

본 추모식은 국민의례와 묵념으로 시작됐고 유가족·정부·국회·지방자치단체 대표의 헌화가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 추모사를 통해 “어떤 말로도 온전한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알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의 독립적 조사와 전문성을 뒷받침하며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179분이 모두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것이지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안다”며 “조사의 독립성을 요구하며 셀프 조사를 멈춰 달라고 지난 1년을 버텨온 유가족들은 179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진실이 끝내 밝혀지고 책임이 반드시 물어질 수 있도록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진상 규명을 위한 투쟁에 함께해달라는 유가족의 호소가 담긴 주제 영상 시청 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억하지 않으면 비극은 쉽게 과거가 되고 반드시 같은 모습으로 반복된다”며 “국회는 이 참사가 과거가 되지 않도록 책임과 권한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추모 주제 공연 ‘집으로 오는 길’에선 희생자 179명의 이름이 한 사람씩 호명됐다. 추모식 내내 슬픔을 억눌렀던 유가족들은 그리움에 사무친 이름을 듣자 너도나도 오열했다.

유가족의 처절한 통곡에 소방·경찰 등 관계자들도 눈물을 함께 흘리면서 장내는 울음바다가 됐다.

이어진 가수 이은미의 추모 공연 후 김유진 대표가 유가족의 바람이 담긴 편지 상자를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전하는 것으로 추모식은 마무리됐다.

추모식 후 유가족들은 무안공항 활주로 내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을 찾아 다시 한 번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안재영 기자

김영록 지사 “‘행정통합 추진기획단’ 설치”

대통합 통해 광주·전남 대부흥 견인

“반도체 벨트 중심축 도약 힘 모아야”

전남도가 내년 초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을 신설하고 행정 통합 준비 작업을 본격화한다. ▶관련기사 3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29일 광주매일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AI·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수도권에 대응하는 첨단산업 중심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광주·전남의 경제적 통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행정통합 추진기획단 설치 방침을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광주·전남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반도체 벨트의 중심축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시대적 상황에 발맞춰 광주·전남 대부흥을 위해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을 설치, 미래지향적인 행정 통합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2023년 광주시·전남도 행정통합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통합 방안 및 절차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대구·경북, 대전·충남 추진 사례도 종합적으로 살피겠다”며 “무엇보다 광주·전남 행정 통합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도 귀 기울여 듣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김 지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하나의 미래 공동체로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을 시작으로 ‘광주·전남 대통합’까지 40년 행정 경계를 허물고 굳건한 광역 연대와 협력의 틀을 마련하겠다”고 행정 통합을 넘어 광주·전남 통합까지 구상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이 같은 방침을 2026년 신년사에도 담을 예정이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3일 송년 기자회견에서도 행정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당시 김 지사는 “전남의 울타리를 넘어 호남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야 할 때”라며 “내년 상반기 출범하는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은 40년의 행정 경계를 허물고 다시 하나가 되는 호남을 향한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또 “원포인트 개헌으로 오월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고 지방분권 국가를 헌법에 천명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예산과 권한을 갖춘 진정한 지방자치의 틀이 마련되는 순간 광주·전남 행정 통합의 길로 즉시 나아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재정 기자

전남 방역망 구멍 뚫렸나

나주서 또 ‘고병원성 AI’ 발생

육용·종오리에 산란계까지 확산

영암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확진된 지 이틀 만에 나주 산란계 농장에서 또다시 고병원성 AI가 발생, 전남지역 방역망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고병원성 AI가 육용오리·종오리 농장에 이어, 산란계 농장까지 12월에만 가금류 사육 밀집지인 나주·영암지역 5개 농장에서 발생해 방역에 초비상이 걸렸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H5형 AI 항원이 검출된 나주 봉황면 소재 산란계 농장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 검사 결과, H5N1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

산란계 4만9천여마리를 사육하는 이 농장은 농장주가 산란율 저하 증상을 확인해 방역당국에 신고했다.

이 농장은 지난 19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육용오리 농가와 불과 1.56㎞ 떨어져 있고 진입로를 같이 사용하는 곳이다.

전남에서는 지난 8일 영암 시종면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최초 발생한 이후 19일 나주 봉황면 육용오리 농장, 23일 나주 동강면 종오리 농장, 27일 영암 도포면 육용오리 농장, 29일 나주 봉황면 산란계 농장까지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을 가리지 않고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농가에서는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후 5시 기준 고병원성 AI는 전국적으로 총 26건 발생했다. /양시원 기자

Today

차기 국회의장 선거 ‘전쟁’ 시작됐다 4면
‘비용 폭탄’에 지역기업 수익성 ‘악화’ 12면
KIA, 스토브리그 마운드 해법은? 16면